

# 石油의 世界史 ②

## —火의 神—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불** (火)이 갖고 있는 마법적인 성질은 많은 종교에 자극을 준 것 같다. 古代의 어느 종교는 한결같이 불에 의존하였다. 자연적으로 타오르는 불은 항상 불가사의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 보통 그것은 아름다운 모양과 함께 생동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종교에 대하여 神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혹은 神에 婦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또는 그 수단으로서 종교에 불이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상적인 방법을 石油과 그 파생물에서 찾았다는 것은 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다른 모든 연료보다도 뛰어난 이 액체는 붉고 아름다운 불꽃(炎)을 내며 타고 재(灰)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古代페르시아의 마즈다敎를 개혁한 조로아스터는 아제르바이잔의 바크지방에서 땅속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불꽃을 모든 목적에 이용하는 법을 알았다. 우리는 古代의 中國인들이 이것을 종교에 이용했다는 증거를 명백히 제시할 수는 없으나, 메디아의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전에 이 불가사의한 불꽃을 채취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신성한 불은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혹은 승려에 의하여 점화되었다. 그리하여 미개사회의 사람들은 그 불을 예배함으로써 저절로 종교에 귀의하였던 것이다.

寺院의 제단위에 놓인 神의 불은 석유가스에 점화된 것이었다.

불의 종교에도 확실히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석유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기는 힘들다. 단지 조로아스터流의 마즈다敎와 여기에 몇개의 지방적인 종교, 즉 美國의 인디안, 말레이지아群島 및 유럽의 종교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지방을 예로 들어 보아도 종교에 불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석유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사이에는 놀라운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석유와 종교의 최초의 연관은 마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실 紀元前 2000년경 슈메르의 마법사는 석유의 삼출(滲出)과 자유로이 발산하는 가스에 의하여 미래를 점쳤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00년후에 앗시리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히토<sup>1)</sup> 우물(井戶)에서 나온 가스를 통하여 이 「神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헤브라이인들은 「불타는 떨기나무(茨)」의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神(여호아)」은 떨기나무 불꽃가운데서 모습을 나타냈다. 모세가 보니 분명히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 있었으나, 불타고 있는 것은 없었다(출애굽기 3:2).

창세기에는 첫뎃계곡에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그것은 小王들간에 일어난 싸움에 관한 것으로 「첫뎃계곡에는 곳곳에 역청이 나오는 구덩이가 있어 소돔왕과 고모라<sup>2)</sup> 왕은 달아날 때에 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다(창세기 14:10).

헤브라이인들이 밤에도 걸어다닐 수 있었고 그들의 이집트탈출을 도운 불기둥은 아마도 땅속으로부터 타오른 석유가스의 불이었음에 틀림없다.

번제(산채로 神의 제사에 바치는 농산물)를 태우는 불은 古代헤브라이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불에 태우는 번제는 神(여호와)의 마음에 들을 것이다」라고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 1: 9, 3: 16, 출애굽기 29: 4). 또한 그것을 제단위에서 불태우지 않으면 안되는 이 불에 대해서도 자주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다. 「神의 불은 때때로 갑작스레 타올랐으며, 神에게 거역하는 죄인들을 불태우기도 했다」(레위기 10: 1~2, 민수기 11: 1~2).

언약계 가운데서는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神은 명령하고 있다(출애굽기 27: 2).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불에 의한 마법과 점술을 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불의 사용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神이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갈 때 그 민족들의 모독행위를 결코 모방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어느 누구도 너의 아들이나 딸에게 불을 주지 말라) (신명기 18: 9~10).

인더스계곡의 古代문명을 자랑하였으며 석유를 많은 용도에 사용했던 印度사람들은 聖典인 우파니샤드의 하나를 불의 儀式을 담은 저승(黃泉) 이야기로 충당하고 있다. 「이 불은 세계의 근원이다」라고 가타 우파니샤드는 말하고 있다(제 15절). 따라서 최상의 평안을 얻는 일, 즉 神(브라만)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이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파니샤드는 규정하고 있다.

바가왓도 기다<sup>3)</sup>와 마찬가지로 감각을 초월함으로써 神(梵: 부라마)과 나(我: 아트만)의 일치, 즉 梵我一如를 최상의 완성이라고 주창하는 우파니샤드는 「이 불을... 우리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희생의 불이라는 관념은 모두 이러한 印度의 宗教時 가운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는 이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새로운 豫言者는 당시 페르샤를 지배하고 있던 마즈다敎 가운데에 삼위일체의 敎義를 따르는 一神敎를 채택한 것이다. 조로아스터에 의하면 우주는 神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희생의 불이다.

그 때까지 神에게 바쳐온 산 제물은 그 후에는

금지되었던 것 같다. 이에 반하여 미디어인 사이에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던 불의 제물(희생물)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미디어 마법사의 명령은 완전한 불의 종교를 수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로아스터는 불의 예배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들의 유일한 최고神인 敎主아후라 마즈다에게 사람들을 귀의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 불의 종교가 탄생한 것은 도처에서 석유가 자연적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디어사람인 조로아스터가 태어난 시기에 페르샤와 小아시아에서는 마즈다敎의 전성시대였다. 불의 예배는 마즈다敎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며 마법사가 聖火를 손에 들고 있는 장려한 寺院의 의식이 古文書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재도 남기지 않고 계속 탔다. 그 후 조로아스터는 불은 神의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化身이며, 불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성질은 전혀 의심할 수 없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인 것 같다. 마즈다敎徒들이 모이는 판데온(萬神殿)에서는 예언자는 명령을 내리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이 밖에 근대에 이르러 기타 지역에서는 그리스도敎가 겐트風의 불의 儀式과 함께 이와 동일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조로아스터가 오기 전에는 대체로 최소한 10개의 불의 寺院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가지 文書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바크근처에 있는 스라한누이의 아텍카寺院- 즉 불의 寺院-이다. 이 寺院(승려나 祭典과 함께 금세기 초까지 잔존했다)에서는 지하의 鑛床에서 나오는 가스를 실제 교묘한 방법으로 채취, 그것을 神殿 위에서 불태웠으나, 신자들은 이 연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기원전 6세기에 또 하나의 유명한 마스깃드 스테이만 寺院에서는 후마에 女王에 의하여 불의 예배가 거행되었다. 이 寺院은 마즈다敎의 가장 유명한 聖域의 하나였던 것 같다. 1908년에 절망 직전의 석유탐사업자가 中東에서 최초의 油層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지방에서였으며, 현재에는 세계 최대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油田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최후의 마즈다敎徒와 조로아스터敎徒들 - 페르샤에서는 「게부르」, 인도에서는 「파르시」라고 불리운다- 이 소련영토내에 있는 스라한누이 寺院

에 참배하는 것도, 마스깃드 스테이만의 불이 상징하는 그들의 神을 예배하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그 불이 영원히 타오르고 있음을 보고 자기 자신들을 위로할 것임에 틀림없다. 석유가스의 거대한 불꽃은 그들의 神에게 바치는 위대한 讚仰과 같이 페르샤와 코카쑈스의 밤하늘을 밝히면서 계속 활활 타오를 것이다.

석유불에 대한 예배는 이슬람敎가 전래한 이후까지도 그들 사이에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다. 아후라 마즈다를 칭송하는 歌集은 그에 대한 국민적 讚仰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의 예배를 후세에 전해주는 데도 공헌하였다. 「그대의 德을 행하고 싶어라, 오 마즈다여, 우리의 기쁨으로서 그대의 강인한 불로 향하리라. 그대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대를 벌주고, 그대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오 마즈다여, 그대의 힘을 나타내는 굳세고 강력한 불로 향하리라. 오 아후라 마즈다여, 그대의 불에 讚仰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힘이 있는 한 정의를 사수하리라」.

로마에서는 만약 불이 꺼지면 聖處女를 제물로 생매장하였다.

古代 페르샤인들 사이에서는 이 神의 불은 지구가 포용하고 있는 천연적인 불인 나프타(石腦油와 휘발유의 뜻도 있음: 역자註)의 불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이 민족의 이웃에서 일어난 印度와 유럽의 다른 종교도 불의 儀式을 도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바위의 갈라진 틈에서 새빨갳게 타오르면서 탄생되었다는 太陽神탄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페르샤의 太陽神 숭배주의와 동일한 것이다. 이 지구의 불은 아구바르타 구바르나, 즉 「補給하지 않아도 타오르는」 불이다.

아리아神話에서 나오는 나프타에 대하여 헤르츠 웨르트(독일의 고고학자)가 발표한 학술연구논문 가운데에는 아구바르타 구바르나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불과 龍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다.

龍이 「만일 네가 補給하지 않아도 되는 이 紅蓮의 불꽃을 모으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잡아 먹겠다」고 하자 불이 대답하기를 「만일 네가 補給하지 않아도 되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먹어버리려

고 한다면 나는 너의 세계의 구멍과 네 꼬리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했다.

아리아神話 가운데에는 액체에서 생긴 이 불은 深海에서 살며 그곳에서 지구의 모든 액체와 물을 생산해 내는 물의 神 암피트리테의 본질적인 상징이며, 전유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古代神話는 석유가 太古의 해양 가운데에서 생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과학과 다시 일치하게 된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되는 것은 암피트리테는 라틴어의 뱀투누스와 동일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거기에 나프토(나프타)의 어원이 있는 것 같다.

불의 예배는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공통적이었다. 불의 예배와 석유와의 연결은 小아시아 이외에서는 이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았다.

印度에서는 모헨조다로<sup>4)</sup>에 있는 瀝靑으로 건조된 寺院의 주변에서 아스팔트의 여러가지 유적이 발견되었다. 뷁도르 뷁위스<sup>5)</sup>는 「상당히 많은 기름을 산출하는 인도의 큰 우물(湖)에 대하여 훌륭한 묘사를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인도의 宇宙進化說은 물을 태우는 불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의 중개적 위치에 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터키와 몽고족 사이에서 잔인한 黃敎가 성행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들마저 제물로 바쳤다. 아마도 인근의 이란의 영향을 받아 불의 종교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古代 게르만민족 사이에서는 불을 萬物가운데서 최고의 것으로 받들었다. 그리스도敎는 이 불의 미신(占)에 대항하여 탄생되었으나, 불을 상당히 경외(敬畏)하는 풍습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로마에서는 불의 예배는 온화한 女神 뷁스타<sup>6)</sup>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다. 이 女神의 상이 있는 원형의 寺院에서는 女神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聖處女들이 생매장되는 운명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영원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로마인들 또한 항상 그들의 집에 있는 아궁이(爐)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금언에도 「아궁이의 불이 꺼지면 가족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앙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발트인들이나 스라브민족 사이에서는 많은 미신

이 뒤섞여 있는 이 영원한 불의 전통이 오랜 기간 보존되어 왔다.

멕시코의 아스테카인들은 불을 神聖視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불 가운데에 스스로 몸을 던진 나나후아틴神의 희생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학문적으로 우수한 그들의 曆法은 時를 52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초기에 불을 새로 바꾸었다. 그것은 아스테카의 종교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하여야 할 아주 장엄한 儀式이며, 디오티우칸에 있는 위대한 태양과 달(月)의 피라미트가 지배하는 게스아르코아톨<sup>7)</sup> 寺院의 웅장한 경내에서 베풀어졌다. 이 유명한 寺院은 현재의 멕시코 시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새로운 불을 기리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아스테카의 젊은이가 燒死되었다.

모든 아궁이의 불은 당연히 꺼져 있었다. 사람들은 어둠속에서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紀元이 시작하는 한밤중, 寺院의 중앙에 준비된 제단위의 거대한 화로(火器)에서 불이 타올랐다. 그 불 가운데로 뛰어난 素質과 아름다움 때문에 선발된 젊은이를 던졌다. 이후 새로운 불은 승려에 의하여 타오르는 횃불로부터 차례차례로 나누어 전달되었다. 환희의 외침속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아스테카인들이 이 儀式에 바치는 제물을 위하여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였는지는 물론 명확하지 않으나, 그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瀝青」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는 이 원료를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불의 儀式을 위해서도 석유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인들도 이와 유사한 儀式을 거행하였으나 그렇게 잔혹한 것은 아니었다. 렘노스<sup>8)</sup>에서는 매년 테로스<sup>9)</sup>에서 운반되어 온 聖火에 의하여 새로 점화되기 때문에 불은 9일간 꺼졌다.

아스테카사람들만큼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조직화되지도 않았던 美國의 인디안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遺蹟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南北아메리카, 프랑스, 스페인 또는 앵그로 색슨系 여행자들이 쓴 최초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원주

민과 도처에서 용출하는 鑛油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버지니아의 리치몬드南西에 있는 「불타는 샘(泉)」은 小아시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에 1705년에 윌리엄 바드가 그곳을 찾아가았으나, 그곳이 인디안들이 예배보던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올림픽의 聖火는 석유불이다

종교와 석유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인 士官이 쓴 美國 인디안의 특수한 종족에 관한 見聞記이다. 이 士官이라는 사람은 듀케이누要塞<sup>10)</sup>의 사령관으로 그는 1750년 몽가름장군<sup>11)</sup> 앞으로 쓴 편지에서 세네카族의 추장으로부터 그 종교의식에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세네카族<sup>12)</sup>에서 연유하여 美國人 파이오니어들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된 석유에 「세네카油」라는 최초의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신호를 하는 즉시 대량의 석유가 흘러들어 오는 근처의 도랑(川)에 점화되었다. 석유는 폭발을 하며 타올랐다. 「불꽃을 보자 인디안들은 산이나 계곡에 울려퍼지는 승리의 외침소리를 크게 외쳤다. 이곳에서 古代東方의 불의 예배가 재연되었던 것이다. 이곳에 태양의 아들들이 모인 것이다」라고 프랑스의 士官은 말했다.

이것은 美國인디안이 적어도 가장 위대한 종족의 하나- 현재에는 소멸되고 있다-로 석유불이 신비적·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美國대륙의 북단에서 남단에 이르기까지 그가 만났던 인디안들은 천연적으로 용출하는 석유를 도처에서 채취하여 그것을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석유불은 도처에서 神은 아니었지만, 종교적 표현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태양을 숭배한 잉카인들은 이미 석유의 정제법을 알고 있었고, 寺院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것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석유불은 聖火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적어도 일부 大種族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의 神聖으로 마음을 정화

하는 상징은 항상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운동선수에 의하여 밤낮으로 운반되어 경기기간중 계속 타오르는 올림픽聖火의 관습은 이 정신에서 유래된 것이다. 파리의凱旋門에 있는 영원의 불꽃도 이聖火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느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 운반되어 온 이 불꽃은 추억의火器에 점화의 역할을 한다. 이들 불꽃은 모두 석유에 의해서 계속 타올랐다.

이집트의「死者의 書」<sup>13)</sup>에는 코카서스의「영원의 불」과 한때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정화의 연못(池)이 여러번 나타나고 있다. 이 가설은 그후 권위를 잃은 어느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 이론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은 코카서스에서 도래했으며, 그 지방을 先祖의 영령의 安住地로서 이상화하였다는 것이다. 「死者의 書」의 기원은 그들의 조국 이집트에서는 우수한 문명의 요람기인 최초의 王朝時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불과 유황의 연못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집트의「불꽃의 연못」은 일종의 天國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옥(黃泉) 견문기」에는 네귀통이에 개의 얼굴을 한 원숭이가 앉아 있는 불의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지옥에는 14개 지역이 있고, 13번째 지역에는 불의 물이 흐르고 있다. 「넛물은 불꽃에서 나오고 있어 그 지역에는 불과 불꽃과 열기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꽃이 갖고 있는 정화의 성질이다. 古代이집트인이 神과 석유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더 검토해 보자. 사카라에 있는 피라미트의 碑銘에 이렇게 쓰여 있다. 「멈춰라, 大地에서 나오는 기름. 꺼져라, 물에서 나오는 불꽃. 행복하라, 길을 되돌아 가라.」 「大地에서 나오는 기름», 「불꽃», 「神」과의 관계는 여기에서 명백해진다.

알렉산더대왕은 젊은 노예로 燄火(炬火)을 만들었다.

이라크 北部 키르쿠크 근처의 바바 구르구르에는 中東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큰 油田 하나가 있다. 油田 근처에는 코카서스의 스토탄누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영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고대의 종교는 설사 그것이 원시적 또는 미신

적 형태였다고 해도, 땅속에서 타오르는 이 불가사의한 불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들 불꽃은 원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신앙을 받으면서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다. 그 주변에는 근대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한 정유공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아라비아인들에 의해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石油鑛床이 샘(泉)을 이루거나 또는 겨우 滲出되면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알렉산더의 생애」 가운데서 푸르타크<sup>14)</sup>가 특별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불꽃과 샘(泉)은 수천년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베라-키르쿠크에서 가까운 현재의 엘비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우가메라에서 전투를 마친 알렉산더대왕은 바빌로니아王國을 돌파한다. 그가 경탄하여 마지 않은 것은 샘에서湧出하듯이 끓이지 않고 불이 타오르는 深淵이다. 한편 그곳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는 나프타가 흘러 우물(湖)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유명한 바바 구르구르의 샘이다. 정복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밤에 나프타를 불태워, 전도시를 환하게 밝혔는지를 푸르타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왕이 宿營地로 가기 위해 마련한 길 양측에 네방향에서 나프타를 흘러 들어오게 했다. 밤이 되어 왕이 모습을 나타내자 그들은 각각의 작은 도랑(小川)에 불을 붙였다. 불은 왕이 가는 길을 따라서 순식간에 사방으로 타올랐다. 이에 감탄한 왕은 문득 한가지 일을 생각해 냈다. 몇명의 젊은 노예와 함께 목욕한 적이 있었다. 그 노예들 가운데 한명에게 나프타를 끼얹고 燄火를 가까이 가져가 불을 붙이도록 그는 명령했던 것이다. 그 불쌍한 노예는 순식간에 온 몸에 불이 붙었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노예들이 재빨리 물을 끼얹어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부인과 초와 흙이 필요하다.

알렉산더대왕은 갈 때마다 석유를 보았을 것이라고 年代記作家는 말한다. 마티<sup>15)</sup>는 「쿠오미스에 크리슈라고 불리는 유명한 불의 寺院이 있으나, 누가 건설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알렉산더대왕은 쿠오미스를 정복한 후 이 寺院에는 손을 대지 않았

고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한다. 이 크리슈의 불은 아쿠와리슈나, 즉 「補給하지 않아도 타오르는」 불이다.

나프타가 불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을 것 같다는 점은 이러한 종류의 불을 끄는데 물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 古代의 모든 작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 불을 끄는데는 부인의 오줌, 식초(酢), 그외의 초(酸)라든가 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석유불에 대한 공포와 미신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유명한 바크와 키르크크의 「영원의 불」과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불은 中東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불타는 샘」은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었다(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정된 기간에만). 따라서 그것은 항상 특수한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푸르타크는 「시라의 생애」<sup>16)</sup> 가운데서 특히 아폴로니아(알바니아)의 불의 우물(井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른 작가들(디온 카시우스<sup>17)</sup> 빅토르 비워스, 프리니우스<sup>18)</sup>)은 神託으로 생각되는 神話에움의 바위(岩)에 대하여 주민들이 비상한 신앙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화에움의 불타는 火口는 인근의 아폴로니아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공포에 떨게하는 모든 惡事を 예언하고 있다」고 프리니우스는 단언했다.

프랑스에서도 오베르뉴<sup>19)</sup> 와 도회네<sup>20)</sup> 에 불타는 샘이 있었다. 의학박사인 장 타르망이 1618년에 도우르논에서 출판한 책은 「구르노블 근처에 있는 불타는 샘과 그 원인의 연구 및 地中の 火의 원리와 그 상세한 해설을 포함한 博物史」라는 긴 제목을 갖고 있다. 오베르뉴의 「불타는 샘」에 대해서는 호

르프가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크레르본 체란과 리움사이에 있는 페쥬의 우물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불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이미 잊혀져 버렸다.

美國 대륙에서는 버지니아에 이와 같은 불의 샘이 있었으며, 어쨌든 윌리엄 바트의 조사에 의하여 유명하게 되었으나 이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석유는 美國대륙 전지역에 항상 풍부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고립된 현상은 아니었음에 틀림없다.

베네수엘라 東部の 석유개발지역에서는 지금도 「영원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이 未開拓지역에서는 그 불이 옛적부터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것뿐 더 자세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자연의 불이 어떻게 着火하여 불타고 있는지 불가사의하게 생각될 정도로 주변의 밀림은 울창하여 숨막힐 정도다.

이러한 「영원의 불」이나 「불타는 샘」에 대해서는 매우 농도가 짙은 석유가스 가운데에 落雷로 인하여 着火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北極海의 에루즈미아섬에서 발생한 불에 대해서는 빅토르 호르방이 보고하고 있으나, 그것도 같은 현상일 것이다. 그곳에서도 또한 석유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게 작은 불꽃에도 인화할 수 있는 탄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群島의 티모르섬에도 똑같이 석유가스에 인화·발생한 「영원의 불」이 있으며 원주민들의 큰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천연적인 「불타는 물」이나 「불타는 샘」- 이들의 땅을 훔아버리는 듯한 불은 고대민족의 공상을 자극하는 성질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불이 항상 신비적인 매력을 환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 〈계속〉

註 1 : 유프라테스江의 西岸에 있는 작은 마을. 바빌론의 城壁이나 건물에 사용된 瀝靑은 여기에서 산출된 것이다.

註 2)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팔레스티나의 고대도시. 死海의 근처에 있다.

註 3) 인도인들의 聖典. 뷔쇼수敎라고도 한다. 이 산스크리트語의 宗教時는 西紀 1세기에 지어졌다고 한다.

註 4) 인더스江유역에 있으며 고대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註 5) 기원전 1세기의 로마건축가. 「건축학」의 저자

註 6) 로마신화에 나오는 妒의 女神. 그리스神話의 헤스티아와 비교된다.

註 7) 語意는 「날개가 있는 뱀」. 고대 멕시코의 神이며 農耕·文字 등을 가르쳐 주었다.

- 註8) 에게海의 섬. 그리스神話에서 유명하다.
- 註9) 에게海에 있는 키크라데스諸島 가운데 하나로 가장 작은 섬. 아폴로 神을 제사지내는神殿이 있다.
- 註10) 알레가니江과 모노가에라江의 합류점에 1735년 프랑스인이 만들었다.
- 註11) 프랑스의 장군(1712~1759). 1756년 新프랑스건설을 위해 캐나다에 파견되어 英國人과 싸워 승리했으나, 本國으로 부터 구원군이 없어 그후 아브라함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죽었다.
- 註12) 에리湖와 온타리오湖의 南東쪽에 살았던 美國인디안의 한 종족
- 註13) 古代 이집트에서 死者를 매장할 때에 副葬문으로서 사용한 문서
- 註14) 그리스의 역사가. 아테네에서 공부를 함. 아

- 시아와 이집트를 여행하고 귀국하여 執政官이 되었다. 「그리스·로마영웅전」이 유명하다.
- 註15) 이슬람 세계에서 살았던 作家
- 註16) 로마의 獨裁執政官(기원전 136~78). 반대파의 마리우스를 살해하고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다.
- 註17) 서기 155년경 소아시아의 니케라에서 태어난 역사가. 「로마史」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 註18) 로마의 식물학자 겸 작가. 古代의 「百科全書」라고 할 수 있는 37冊으로 된 博物誌의 저자. 서기 79년 베스비아스 폭발로 사망했다.
- 註19) 프랑스의 旧地方名. 1610년 프랑스에 통합되었다. 목축과 농업이 번창하였으며, 중심지는 크레르몽 체란.
- 註20) 구르노블을 수도로 하는 프랑스의 旧地方名

□ 海外石油開發動向 □

## 가봉의 石油開發 現況

가봉이 공개한 鑛區에 참여의사를 보이던 석유회사들은 이를 재고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생산회사들은 배럴당 2~3달러의 순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石油價格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가봉에서 발견되는 油田이 소규모여서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가봉은 현재 11개 海洋鑛區와 3개 陸上鑛區를 공개하고 있는데 마감은 금년 2월말이다. 지난해에는 수개의 有望油田이 발견되었다. 최근에는 Conoco와 Exxon이 가봉 南部海洋鑛區에 대해 계약을 맺었고 정부는 또 다른 대규모 국제회사가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여타국과는 다른 로얄티가 포함된 가봉의 혼성 生産分配시스템이다. 이 로얄티는 15~25%에 달해 生産量의 80~85%만을 石油會社와 정부가 분배하게 되어 있다. 비용원유는 40%까지 이를 수 있는 반면 利益原油는 계약과 생산의 규모에 따라 15~27%까지 그 비율이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다. 1978년 이후에 분양된 모든 鑛區는 生産分配 계약하에 있다. 그러나 生産量의 80%는 여전히 OPEC의 수정된 이런 조건하에 있고 단지 EIf의 Konzi 油田과 Amoco의 Oguendjo 油田만이 生産分配契約下에 있다. 이 이런조건은 20%의 로얄티와 73%의 소득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로얄티는 10%의 수송비를 감한 고시가격에 근거하고 있

어 실제 로얄티는 17.1% 수준이다.

생산비는 배럴당 6~7달러이지만 로얄티, 세금,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총 비용은 23달러 정도에 달하므로서 이런 原油의 배럴당 순이익은 2~3달러에 불과하다.

집중적인 탐사노력에 힘입어 石油會社들은 새로운 매장량을 발견, 가봉의 현생산수준인 약 16만b/d를 금후 5, 6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EIf, Shell, Tenneco 등의 주요 생산회사들은 모두 1985년에 새로운 油田을 발견한 바 있다. 그리고 Anguille와 같은 EIf의 舊 海洋油田은 당초 추정보다 그 매장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hell은 陸上에서 2개 油田을 발견, 陸上開發의 길을 터 놓았다. Tenneco는 Octopus, Obando, Pelican 등의 3개 海洋油田을 발견·생산량은 Cap Lopez로 수송할 수 있는 시설사용에 대해 EIf와 협의중이다. 이 협상이 체결되면 Tenneco는 1987년부터 약 8,000b/d를 생산할 수 있어 Amoco의 Oquendjo 생산량 감소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매장량의 규모는 1985년 생산수준을 2배로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지난해의 생산량은 162,000b/d였는데, 이중 124,000b/d를 EIf가, 2萬b/d를 Shell이, 18,000b/d를 Amoco가 생산했다. 1984년의 생산량은 15만b/d였다.